



마리아의 전교자 프란치스코 수녀회
Franciscan Missionaries of Mary

나눔

희망을 지피는

2021 3·4

착한 사마리아인과 우리 지구

이영주 스텔라.FMM



지난 성탄절, 특별한 카드를 받았다. 이 카드에는 아기 예수님이나 구유가 없다. 대신 ‘착한 사마리아인’(루가10,29-37)이 있다. 이 사마리아인은 길가에 쓰러진 지구를 살피고 있다. 부서지고 패여서 형체가 망가진 지구. 강도를 만난 이는 다름 아닌 우리 “지구”였던 것이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회칙 「모든 형제들」에는 ‘착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온다. 형제애가 무너진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성서적 기반으로 제시되고 있다. 메시지가 너무나 명확하다. 복음의 핵심을 전달함과 동시에 분명한 선택을 요구한다. 우리는 강도를 만난 이를 도와주거나 아니면 지나쳐갈 뿐이다. ‘고통 앞에 중립은 없다.’

이제, 강도를 만난 이는 우리 지구이다. 초추검이 된 채 쓰러져버렸고, 무관심으로 인한 조용한 죽음이 검은 구름처럼 드리우고 있다. 「찬미받으소서」에서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하느님께서 지구에 선사하신 재화들이 우리의 무책임한 이용과 남용으로 손상을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구를 마음대로 약탈할 권리가 부여된 주인과 소유주를 자처하기에 이르렀습니다.(중략)이러한 이유로 억압받고 황폐해진 땅도 가장 버림받고 혹사당하는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구는 ‘탄식하며 진통을 겪고’(로마 8,22)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흙의 먼지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제2항)

이러한 지구를 돌보아야 할 이유는 명백하다. 바로 우리 공동의 집이자 누이이며 어머니이기 때문이다. “저의 주님, 찬미받으소서. 누이이며 어머니인 대지로 찬미받으소서. 저희를 돌보며 지켜 주는 대지는 온갖 과일과 색깔의 꽃과 풀들을 자라게 하나이다.” (아씨시의 성프란치스코, ‘태양의 찬가’ 중에서.)

「모든 형제들」에서는 ‘착한 사마리아인’ 바로 다음에 카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인용한다. “제가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창세4,9)라는 카인의 말대꾸에 하느님은 카인이 외면한 끔찍한 사실을 상기시킨다. “네 아우의 피가 땅바닥에서 나에게 울부짖고 있다.”(4,10) 그러니 우리는 분명 형제, 자매를 지키는 사람들이다. 또한 강도를 당한 이는 낯선 이가 아니라 형제요 자매이기에 우리는 ‘지구를 지키는 이들’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중단되었던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이 재개될 조짐이다. 지리산에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산악열차를 짓는다고 한다. 제주 성산읍에는 제2공항을 추진 중이다. 대지는 온갖 쓰레기를 품고 있다. 바다는 생명이 아니라 미세플라스틱으로 넘실댄다. 공기 또한 미세먼지로 가득하다. 오늘날 자연을 두고 우리는 과연 어떤 찬가를 지을 수 있을까?



사마리아인에게서 배워야겠다. 그가 지불한 ‘비용’이 고맙기도 하지만, 회칙에서는 더 중요한 사실을 지적한다. 이 바쁜 세상에 너무나 소중한 것, 즉 ‘시간과 관심’을 내어준 것이다. 또한 회칙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또 다른 인물을 조명한다. 바로 사마리아인의 부탁을 받은 여관주인이다. 사마리아인 혼자 이 모든 일을 할 수는 없다. 그도 도움을 청해야만 했던 것이다. 나는 여기에 노새도 포함시키고 싶다. 예루살렘 입성 때 예수님을 등에 태운 나귀만큼은 아니어도, 이 일은 노새에게도 영광이었을 것이다. 좋은 주인을 둔 덕분에 그도 선한 일에 동참하였으니 말이다.



우리도 시간과 관심을 쏟아야겠다. 쓰레기 분리수거와 같은 생활의 실천뿐 아니라 정책을 바꾸는 일에도 관심을 가져야겠다. 가능하다면 모임이나 시위에도 참여하자. 요즘은 자신이 사는 곳에서 손팻말을 들고 인증사진을 찍어 SNS에 올리는 방법으로 시위를 할 수도 있다. 어떤 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투신할 수도 있을 것이다. 사마리아인이든, 여관주인이든, 노새든, 그 역할의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우리 모두는 지구를 돌보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미래 세대에게 보다 나은 현실을 물려주고, 그들 사이에 회자될 또 다른 복음 안에서 ‘강도’가 아닌 ‘착한 이들’로 기억되기를 바랄뿐이다.

봄이 오듯 자연스럽게

성프란치스코장애인종합복지관

하느님께서 만드신 창조질서에 따라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여정, 이번 호부터는 그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첫 번째 당첨자는 바로 성프란치스코장애인(여성장애인)종합복지관입니다.

파란 새싹이 빼꼼히 고개를 내미는 꽃밭을 지나 성모님이 두 팔 벌려 맞이하시는 복지관. 친절한 자동문을 거쳐, 비록 마스크는 썼지만 환한 미소가 가득한 분들이 반긴다. 김희정 아녜스 관장 수녀님, 김덕수 부관장님, 김영민 과장님이다.

질문: 성프란치스코 복지관 중단기계획을 보니 모든 직원들이 JPIC(정의, 평화, 창조질서 보전Justic, Peace, Integrity of Creation) 실천가가 되게 한다고 되어 있다. 직원교육에서도 다루는 것 같은데, 특별히 기억나거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있다면?

관장 수녀님: 연초 시무식 직원교육에서 이 내용을 다룬다. JPIC는 특별한 무엇이 아니라 복음을 실천하는 하나의 방법이며 생활운동이다.

부관장님: 사실, JPIC는 관계에 관한 문제이다. 하느님, 이웃,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복지관은 접근하기 쉬운 자연과의 관계에 주력해서 환경과 관련된 실천을 노력하고 있다.

과장님: 무엇보다도 ‘함께 사는 것’이 중요한 것 같다. 그와 관련된 올바른 습관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하 복지관 실천사례에 대한 과장님 설명)

우리 복지관은 이용자들뿐 아니라 직원, 강사, 자원봉사자 등 모든 사람들에게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다. 복지관에서 실천하는 ‘초록온도 만들기’뿐 아니라 양치컵 사용하기, 일회용품 사용 자제, 에너지 절약,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교육한다. 윤리경영위원회에서 올해는 ‘초록온도만들기’, ‘공간정리’, ‘거리청소캠페인’, ‘아나바다장터’를 중점사업으로 정했다. 암행어사제도도 있다. 잘 실천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가 소홀히 다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암행어사가 출두한다.(웃음) 직원들의 책상 주변을 점검해서 개인정보가 방치되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다. 멀티탭에 불필요한 전원은 꺼져 있는지, 이면지 사용은 잘 되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



질문: 철저히 하는 것은 좋지만,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겠다.

부관장님: 물론 그럴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나 취지를 잘 설명하고 직원들의 동의를 구한 후 실행한다. 잔반 없애기 운동도 마찬가지다. 우리 복지관 식당에는 잔반통이 아예 없다. 각자 먹을 만큼만 덜어서 먹는다. 그래서 잔반이 거의 나오지 않는다. 처음에는 곤란해 했지만 지금은 모두 익숙해져 있다. 결국은 생활습관 문제이다. ‘공간정리’도 마찬가지다. 필요한 사무용품 외에는 공유공간에 놓아두고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서 사용한다. 이런 식으로 재활용하거나 절약할 수 있다. 가끔 간식이 놓여 있기도 하다.(웃음)

과장님: ‘거리청소캠페인’은 코로나 상황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 지금까지는 월1회 한 시간 정도 직원들이 거리청소를 했다.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가 되면 다시 시작할 계획이다. ‘아나바다 장터’는 작년에 직원들끼리 경매방식으로 해보았다. 반응이 좋았고 재미도 있었다. 아동청소년팀에서는 여름, 겨울, 두 차례에 걸쳐 계절학기를 한다. 이때 아이들이 집에서 필요 없는 물품을 가지고 와서 아나바다를 한다. 칭찬스티커 모은 것으로 물건을 산다. 또한 대면으로 사업설명회를 할 때도 아나바다를 했다. 자녀를 둔 이용자들은 아이들 옷이나 장난감을 가져와서 교환하기도 한다.



관장 수녀님: 재활용과 관련해서, 환경미화원 자매님이 폐현수막을 잘라서 가방을 만들어 주신다. 담당업무가 아닌데도 일부러 마음을 써서 해 주신다. 노인팀에서 주2회 밑반찬 배달을 하는데 그 가방에 담아서 드린다. 비닐봉지보다 재활용도가 높아서 좋다. 무엇보다도 그 자매님의 정성이 고맙다.

질문: 이제 환경문제에서 벗어나 다른 이야기를 해 보자. 작년에 교황님께서 또 다른 회칙 <모든 형제들>을 발표하셨다. 여기에서 ‘돌봄의 문화’를 강조하신다. 복지관이야말로 ‘돌봄’의 장이라고 할 수 있다. 돌봄이 가장 필요한 이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는가?

과장님: 개인적으로는 성인여성장애인이라고 생각한다. 자녀가 있는데 본인의 장애 때문에 제대로 돌봐주지도 못한다. 본인의 장애가 대물림되는 경우도 많다. 성인이 되면 돌봄시설에 가기도 어렵다.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장애인 자녀를 살해하는 뉴스를 접하게 된다. 안타까운 현실이다.

부관장님: 이번 교황님으로 인해 환경에 관한 문제가 더 대중화가 된 것 같다. 우리 복지관은 훨씬 이전부터 해 오던 것이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천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과장님: JPIC는 결국 가치의 문제이다. 자발적인 실천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이 부분이 숙제이다.

질문자: 예전에는 환경이나 인권, 평화에 관한 운동이 좀 심각한 양상을 띠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운동은 좀 더 재미있게 해야 오래간다. 그래야 대중의 생활 안에 스며드는 실천 운동이 된다. 대중이 바뀌면 정책도 바뀌도록 압력을 가할 수 있다.

관장 수녀님: 자발적인 실천이 되도록 계속 연구해야겠다.

이어서 앙증맞은 ‘초록운동 365’ 미니 배너를 보여주셨다. 이용자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모든 방마다 비치했다고 한다. 그 내용이 참 재미있다. 각 요일마다 그 특색에 맞게 실천 사항을 정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금요일’에는 ‘기름 값은 금값’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문구이다. 직원연수 때 각 조별로 직원들이 직접 만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재치 있고 재미있게 하면 되겠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니 땡글땡글한 목련 꽃눈이 눈에 들어온다. 언제 오는지도 모르게 봄이 오고 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자연을 보살피고 서로를 돌보고 싶다. 이 아름다운 분들과 함께.

대담: 성프란치스코 여성장애인복지관 김희정 아녜스 관장수녀님, 김덕수 부관장님, 김영민 과장님.

정리: 이영주 스텔라. fmm

수녀원 소식



“저 자신을 남김없이 성부께 맡겨드립니다.”

2021년 2월 6일 오전 10시 30분 관구관에서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따르도록 불러주신 이해영 마리아 고레티 수녀님의 종신서원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종신서원 예식은 주례 사제와 함께 관구 공동체 수녀님들과 이해영 마리아 고레티 수녀님의 부모님, 동생 신부님 2분만 모시고 이루어 졌습니다. 미사 주례는 작은형제회 관구장 김상욱 요셉 신부님께서 해주셨고, 수녀님의 동생 이철희 미카엘 신부님(작은형제회), 이윙희 루카 신부님(작은형제회)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종신서원 후 관구장 이선영 데레사 수녀님은 수도회 총장을 대리하여 이해영 마리아 고레티 수녀님을 일본 관구의 복음화에 봉사하도록 파견하셨습니다.

이해영 마리아 고레티 수녀님이 하느님께서 주신 성소를 충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성프란치스코수녀회 2020년 후원금 결산서
(1월-12월)**

수 입		지 출	
전년도 이월금	74,505,902	사무비	14,325,691
후원금수입	408,276,489	법인 사업비	60,978,329
		해외선교지원	34,150,100
		새터민	62,761,670
		이주민	72,721,020
		공부방	36,020,000
		기타사회 복지	43,954,358
		양성비	48,341,296
		후원자관리	18,363,492
		이월금	91,166,435
수입합계	482,782,391	지출합계	482,782,391

자동 이체를 원하시는 분은 도장, 통장,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아래 은행을 방문하셔서 이체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예금주 : 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

국민은행 362737-04-000395 농 협 100072-51-060834

*** 후원금이 아닌 미사예물이나 봉헌금은 다음 계좌로 보내주세요.**

농 협 352-1499-1313-23 예금주 : 김계숙

후원회 : 010-2821-8174 수녀원 : 02-865-8174

E-Mail : fmmssp@hanmail.net

